

재충전 마친 AI페퍼스, 후반기 순위 도약 ‘시동’



1일 오후 4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서 한국생명전
남은 12경기서 구단 최다승리·승점 경신 등 주목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재충전을 마치고 후반기 순위 도약에 나선다.

AI페퍼스는 1일 오후 4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한국생명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첫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앞서 프로배구는 지난 23일까지 4라운드 일정을 마무리한 뒤 25일 올스타 경기를 치렀다. 이날 모든 프로배구 구단은 한몸이 돼 팬들과 축제를 즐겼고, AI페퍼스에서는 시마무라와 박정아가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이어 주어진 휴식기는 5일. 숨을 고른 구단들은 29일부터 재개된 5라운드부터 봄배구를 향한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돌입했다.

현재 V리그 여자부는 구단별 점전을 펼치고 있다. 29일 경기 전 기준 1위 한국도로공사는 승점 52점으로 독주를 이어가는 중이다.

2위 한국생명(승점 44점)과 3위 현대건설(승점 42점)은 2점 차로 치열한 경쟁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4위 IBK기업은행(승점 36점)과 5위 GS칼텍스(승점 33)는 남은 12경기에서 3위권으로 진입을 노린다.

6위 AI페퍼스(9승 15패 승점 27점)는 갈 길이 멀다. 최하위 정관장(승점 18점)은 멀찍이 따돌렸으나 중상위권과의 격차가 크다. 가장 가까운 GS칼텍스를 잡으려 해도 온전히 2경기 이상을 따내야 한다.

올 시즌 시작 전 설정한 목표치 역시 아득하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12경기. 과제로 삼았던 5할 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9승을 더 따내야 한다. 남은 기간 75%의 승률을 달성해야

하는 셈이다. 20승의 벽은 사실상 넘을 수 없다. 봄배구 또한 불씨가 남아있지만, 희망적인 상황이다.

그레도 눈을 돌리던 새로운 성과들이 목전에 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리그 최하위 탈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시즌 달성한 단일 시즌 최다승과 최다 승점(11승 25패·승점 35) 기록도 경신할 전망이다.

비록 스스로 설정한 과업을 이루진 못하더라도, 예년과는 달라진 모습을 증명할 기회다.

더욱이 후반기는 변수가 많다. 모든 구단이 체력적으로 지친 상황인 만큼, 전략을 잘 짜고 경기력을 가다듬는다면 깜짝 반등을 기대해볼 만하다.

AI페퍼스는 최근 경기에서 이미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4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강호’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1(23-25 25-15 25-16 25-19)로 제압했다. 이 경기에서는 외인 조이가 양 팀 최다 31득점(공격성공률 51.92%)을 올리며 맹활약을 펼쳤다.

아시아쿼터 시마무라도 16득점(공격성공률 65%)을 기록하며 살아난 공격력을 뽐냈다. 여기에 하혜진이 8득점(공격성공률 80%)을 뽑아내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리그 중반부터 집중경제로 주축했던 시마무라가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맹활약하고 있는 세터 이원정 역시 팀에 큰 힘이 된다.

다소 부진하고 있는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이 정상 가동되고, 리시브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번 경기 상대인 한국생명은 현재 14승 10패 승



지난 21일 오후 7시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여섯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23-25 25-15 25-16 25-19)로 승리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KOVO

점 44로 리그 2위에 자리하고 있다. 당초 시즌 전만 하더라도 김연경이 없는 한국생명은 힘이 빠질 거라는 추측이 많았다. 실제 많은 전문가가 한국생명을 하위권으로 예상했으나, 전반기 막판 5연승과 함께 승점 2위로 치고 올라갔다.

여기에는 신인 감독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일본 출신인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은 김연경 은퇴로 전력 공백이 생긴 한국생명 지휘봉을 잡고, 강호연과 선수단 체질 개선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중이다.

한국생명과 최근 3경기 상대전적은 1승 2패로 AI페퍼스가 열세다.

올 시즌 재도약에 나서는 AI페퍼스가 한국생명을 꺾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유현조



홍정민



박현경



배소현



이을린

KLPGA 얼굴들, 새 시즌 도약 준비 ‘착착’

‘제18대 KLPGA 홍보모델’ 12인 전지훈련 돌입

유현조 “단독 다승왕”·박현경 “10승·대상 목표”

2026시즌을 앞두고 KLPGA 투어의 대표 얼굴인 ‘제18대 홍보모델’ 12인이 전지훈련에 본격 돌입했다.

2025 위메이드 대상의 유현조(21·롯데)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026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현조는 “지난 시즌 대상 수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체력과 쇼트게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KLPGA투어뿐만 아니라 해외 대회도 출전할 계획이어서 체력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의 올 시즌 목표는 단독 다승왕 타이틀이다. 유현조는 “신인상에 이어 대상까지 받으며 지난 시즌까지 정말 잘 해내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승 획득”이라며 “2026시즌에는 단독으로 다승왕에 오르고 싶다”고 밝혔다.

2025 KLPGA 정규투어 상금왕과 공동 다승왕에 오르며 절정의 기량을 뽐낸 홍정민(24·한국토지신탁)은 올해도 포르투갈에서 담금질을 시작했다. 5년 연속 같은 곳을 선택한 홍정민은 “지난 시즌 좋았던 기운을 이어받고 싶다. 이번 전지훈련에서는 시즌 끝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특히 최종라운드 승부처에서 집중력을 잃으며 판

단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체력 훈련 비중을 80%까지 높여서 진행 중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난 시즌 아쉬웠던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드라이브 샷 훈련에도 집중하고 있는 만큼 2026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나란히 1승씩을 거둔 박현경(26·메디힐)과 배소현(33·메디힐)도 쾌적한 환경을 갖춘 포르투갈에 전지훈련 캠프를 함께 차렸다. 박현경은 “이번 전지훈련에서는 아이언 샷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며 내 장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며 “그리고 골프는 흐름 싸움인데, 퍼트가 경기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퍼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시즌 목표는 KLPGA 대상이다. 스스로 꾸준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올 해도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최정상의 위치까지 오르고 싶다”며 “해마다 도전하고 있지만 올해는 통산 10승을 달성하며 대상까지 꼭 차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럽에서 처음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배소현은 “지난 시즌 최종라운드에서 결정력이 부족했다

고 느꼈는데, 퍼트에서 기복이 있었고 티샷에서도 불안한 장면이 다소 많았다”며 “이 부분을 이번 훈련에서 보완하고 싶다. 또한 쇼트게임도 중점적으로 연습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소현은 2024시즌 3승, 2025시즌 1승을 달성했다. 올 시즌에는 메이저 대회 우승을 노린다.

그는 “2026시즌 가장 큰 목표는 메이저 대회 우승이고, 더불어 올 시즌에는 다시 다승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남반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도 눈에 띈다. 지난 시즌 KLPGA 정규투어에서 2승, 드림투어에서 4승을 휩쓸며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한 김민솔(20·두산건설 워브)은 2년 연속 뉴질랜드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솔은 “지난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한 덕분에 뛰어난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서 올해도 다시 찾았다”면서 “첫 시즌을 치르며 비거리가 길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고 느껴, 이번 전지훈련에서는 비거리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곳은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마음껏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시즌 신인상에 도전하는 김민솔은 “지난

해 2승을 기록하며 정말 행복한 시즌을 보냈다.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줬고 도움도 받았는데 올해는 지난 시즌보다 1승을 추가한 3승을 달성해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열정을 드러냈다.

지난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이을린(24·두산건설 워브)이 선택한 전지훈련지는 태국이다. 이을린은 “더운 날씨에 잘 적응해 다가올 시즌에는 여름에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태국으로 정했다”면서 “지난 시즌에 우승하면서 퍼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래서 이번 전지훈련에서는 퍼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린 적중률도 보완이 필요해 연습량을 늘리고 있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아울러 “운이 좋게도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태국에서 2026시즌 개막전 ‘리쥬란 챔피언십’이 열린다.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만큼 잘 준비해서 올 시즌 첫 승에 도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2026 KLPGA 정규투어 개막전인 ‘리쥬란 챔피언십’은 오는 3월 12일부터 나흘간 태국 춘부리에 위치한 아마타스프링 컨트리클럽에서 총상금 12억원(우승상금 2억1600만원)을 놓고 개최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생활체육 활성화에 온 힘” 시체육회,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광주시체육회는 29일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5개 구체육회 사무국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갑수 시체육회장을 비롯해 5개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은 구체육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무국장들과 함께 광주체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광주가 체육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육회 임직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구체육회 운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시민체육대회 개최 등 시체육회와 구체육회간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시민의 일상 속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구체육회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며 “구체육회와 소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체육행정을 추진해 2026년 광주 생활체육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퓨처스, 日 고치서 스프링캠프

내달 5일 첫 훈련…43명 선수단 참가

KIA타이거즈 퓨처스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위해 일본 고치로 출국한다.

KIA 퓨처스 선수단은 일본 고치시 동부 야구장에 캠프를 차리고 5일 첫 훈련을 시작으로 2026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이번 퓨처스 캠프에는 전갑용 퓨처스 감독을 비롯해 코칭스태프 13명, 투수 15명, 포수 3명, 내야수 8명, 외야수 4명 등 총 4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캠프는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치러진다. 선수단은 캠프 초반 체력 훈련과 기술 및 전술 훈련을 소화한 뒤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연습경기는 한화 이글스와 3경기, 일본 독립 구단과 4경기 등 총 7경기를 치른다.

한편 선수단은 3월 3일 훈련을 끝으로 캠프를 마친 뒤 3월 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